



# 인쇄홍보대사에게 방송인 김미화씨 위촉

●●●

김미화씨는 1964년 9월22일 생으로 1983년 KBS 개그 콘테스트로 방송에 데뷔했다. 성균관대학교를 나온 후 중앙대학교 대학원에서 신문방송학을 전공했다. 별명은 '입 큰 개구리', '순악질 여사'이며 취미는 등산, 종교는 기독교이다. 1998년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대중예술부문)을 수상했고 녹색연합 홍보대사,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홍보대사, 사랑의 삼각간 운동본부 본부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현재 MBC라디오 생방송 '김미화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을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진행하고 있으며 4월말부터 KBS 텔레비전의 'TV, 책을 말하다'를 맡고 있다.

대한인쇄문화협회(회장 홍우동)는 지난 4월14일 오후 2시30분 인쇄문화회관내의 인쇄역사관에서 코미디언 겸 방송인인 김미화씨를 '인쇄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이날 위촉식에는 홍우동 회장과 김미화씨를 비롯 민창준·조만영 협회부회장, 노주현 홍보미디어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위촉식에서 홍우동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책과 인쇄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많은 김미화씨를 인쇄홍보대사로 위촉하게 돼 기쁘다"면서 "앞으로 인쇄중주국인 우리나라의 인쇄홍보대사로 인쇄문화의 대내외 홍보와 발전에 적극 협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미화씨는 "금속활자 발명국인 대한민국의 인쇄홍보대사로 위촉돼 영광으로 생각하며 저를 선택해 준 대한인쇄문화협회에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인쇄문화 홍보를 위해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대한인쇄문화협회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먼저 금속활자 인쇄를 실현함으



로써 인쇄중주국으로 인정받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유명인사를 인쇄홍보대사로 위촉, 인쇄중주국의 위상을 국내외에 널리 알려 인쇄의 위상을 제고하고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인쇄홍보대사를 위촉했다고

밝혔다. 한편 인쇄홍보대사로 위촉된 김미화씨는 앞으로 대한인쇄문화협회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에 참석하게 되며 방송 등을 통해 인쇄문화에 대한 홍보를 담당하게 된다.



대한인쇄문화협회는 지난 4월14일 코미디언 겸 방송인인 김미화씨를 '인쇄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사진은 인쇄문화회관내의 인쇄역사관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